

『베포도업침』의 창조신화적 성격

김 선 희*

차 례

1. 머리말
2. 창조신화 연구 양상
3. 「천지왕본풀이」와 「베포도업침」의 상관관계
4. 「베포도업침」의 창조신화적 성격
5. 맺음말

1. 머리말

신화해석은 표면상의 서술 밑에 깊숙이 숨어 있는 진실을 해석하는 것이다. 세계와 인간의 기원에 대해서 그동안 종교적 측면에서부터 자연과학에 이르기까지 다방면에서 연구하고 해석되어 왔다. 사회구조를 알기 위해 신화를 분석하며, 인간의 심리분석을 위해서 신화 연구를 한다. 또 역사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도 신화연구가 이루어진다. 문학 연구 역시 구조적 원형을 신화에 두는 문학론이 있다. 그러나 창조신화에서 발견되는 세계와 인간의 기원은 객관적이고 합리적으로 설명하기가 힘들다. 왜냐하면 창조신화는 실재의 우주나 세계의 기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시심성의 주체에 의해 무의식적으로 감지된 세계의 기원을 묘사한 것이

* 제주대학교 대학원 박사수료. sunnymama@hanmail.net

기 때문이다. 따라서 눈에 보이는 현상으로 설명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이면에 있는 심리 현상으로 이해해야 한다. 각 집단이나 민족마다 고유한 집단적 토양에서 제각기 다른 의식의 분화가 이루어지고 정립해 나가는 과정에서 창조신화를 형성하는데, 이는 우주와 인간의 기원이 하나의 실재임에도 다양하고 많은 창조신화를 낳은 것으로도 증명된다.

정신분석학적 관점 연구는 신화를 상징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수단이다. 신화는 인간 무의식의 산물이라 규정하고 인간의 심연에서 신화를 연구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칼 융의 분석심리학은 이미 흘러가서 역사가 되어 버린 고전 학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 하지만 융의 분석 심리학은 집단적 무의식에 주목하며, 시공간을 뛰어넘는 인간의 심성에 관심을 갖는다. 유전자에 내재되어 있는 '인간의 보편적인 기억과 정보'라는 말과 거의 유사하다고 할 수 있는 '원형(Archetype)'을 탐구한 그는 탁월한 직관력을 가졌다고 할 수 있다. 이 분야의 연구는 실제로 신화나 민담을 무의식 활동이 의식의 표면에 이르기까지의 과정을 밝히고 인간의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설명하기 위해서 민담, 신화, 종교 등에 인류의 보편적 이미지가 깃들여 있음을 확인해 나갔다.

신화는 사실과는 거리가 있어서 허무맹랑한 이야기로 여기고, 신화의 내용은 현대와는 먼 태고 사람들의 전유물로 간주하기 십상이다. 그러나 신화는 과거의 전유물이 아니라 현대인의 삶 속에도 지속된다. 인간 생활에 있어서 과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역동적으로 변화하는 것이 역사라고 한다면 삶의 심연의 심리적 기제로써 변하지 않는 것은 인간의 정신인 것이다. 인간은 집단과 문화의 영향에서 절대로 자유로울 수가 없으며 이러한 점이 집단적 무의식에 주목해야 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본고에서는 이처럼 인간이 집단과 문화의 영향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과 집단적 무의식에 주목하여 창조신화를 바라보고자 한다. 특히 제주도 무속 신화 가운데 하나인 「천지왕본풀이」뿐만 아니라 본풀이 서두에서 나타나는

「베포도업침」에 주목하여 살펴보고자 한다.

인간 무의식의 표출은 종교와 신화 혹은 무속을 통해서 현대에도 살펴 볼 수 있는 것이다. 「천지왕본풀이」는 많은 연구자들이 지칭 용어에서부터 본토의 창조신화와의 비교 연구, 창조신화적 성격을 다각도로 연구하여 온 대표적인 창조신화이다. 특히나 제주도의 경우 현재에도 심방들에 의해 구연되고 전승되고 있어서 그야말로 살아 있는 신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이는 구연상황이나 구연 심방에 따라 가변적으로 드러나는 현장성이나 현재성에 주목하여 살아 있는 신화라 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채록된 신화텍스트에서 발견되는 창조적 성격을 밝힘으로써 과거의 죽은 신화가 아니라 시공을 넘는 인간의 본태적 심상을 연구 할 수 있다는 점에서 제주 신화의 현재성과 생명력을 논하고자 하는 바이다. 또한 본고는 많은 논자들이 「천지왕본풀이」에 중점을 두고 연구한 반면 제주 무속신화의 창조적 성격을 「베포도업침」에서 밝히고자 한다.

2. 창조신화 연구 양상

창조신화는 세계의 출현과 형성에 관한 신화이며 인간이 어떻게 등장하게 되었는지 그 기원을 다루는 신화를 말한다. 창조신화라는 용어는 학계에서 여러 가지로 변형되어 쓰인다. 그 가운데 '창세가'라는 말은 그 연원을 알 수 없지만 동양 삼국에서 두루 쓰고 있어서 학계에서 통용되고 있다. 또 창세기조신화라는 용어는 건국신화나 무속신화에서 인세차지 경쟁신화소가 포함되어 인간 세상의 시조를 밝히는 데에 착안하여 나온 것으로 본다. 다음은 천지개벽신화인데 이 용어는 하늘과 땅이 특별한 주체가 없이 저절로 열린다는 내용에 주목하여 명칭이 부여된 것으로 천지가 혼돈이 되고 해와 달이 두 개가 된 것은 천지개벽신화라는 용어 안에 들

어 갈 수 있는 내용이다. 본고에서는 이러한 용어의 혼재 속에서 세계 창조, 신 창조, 인간 창조라는 신화소에 그 의미를 두고 창조신화라는 용어를 사용하고자 한다. 창조라는 말은 무에서 유가 발생하는 것과 있는 것, 존재하는 것에서 변형하는 것 모두를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다. 창조신화 역시 절대자가 우주, 신, 인간을 창조를 도맡아 하는 내용의 것과 우주창조가 이뤄진 후 신 창조, 인간창조가 이뤄지는 경우가 있다. 우리 신화의 경우 우주가 저절로 생겨난다는 의미가 강조되어 개벽이라는 말이 쓰이는 것이다. 본고는 이처럼 우주의 창조에 있어서만 그 주체가 분명하게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있을 뿐이고 신화 각 편에서 모습을 달리하면서 창조의 주체가 드러나는 경우를 두루 포함시켜서 이를 천지개벽신화라고 국한하지 않고 우주창조, 신 창조, 인간창조의 신화소에 의미를 두어 창조신화라 하고자 한다.

창조신화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세계의 출현과 인류의 기원에 관한 신화이다. 이런 창조신화는 세계신화에서 나타나고 그 중심에 성경의 「창세기」가 있다. 그러한 세계창조의 이야기는 비단 성경에만 있는 것은 아니다. 한국의 창조신화에 관한 검토와 연구도 다양하게 다각도로 시도되고 있는데 특히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가 그 대상으로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 부속신화에서 창조 신화와 제의와의 관계를 밝히는 연구, 각 지역별로 나타나는 유사 신화에서 창조 신화소를 추출하고 각 신화간의 상관관계를 밝히고 전과론적 전제하에 자료의 유파 경로를 파악하거나 신화의 보편원리를 찾는 연구, 신화는 무의식의 산물이라는 전제 하에 창조신화에서 발견되는 상징이나 원형을 해체하고 분석한 후 어떤 요소로 환원될 수 있는가 하는 연구 등이 그렇다. 이러한 바탕에서뿐만 아니라 다양하게 이루어진 연구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서대석은 창조신화를 창세기조신화라 하는데 전국 각 편에 두루 공존하는 내용이 인세 차지 경쟁 삽화이며 이 부분은 창세기조신화의 핵심이

라고 본다. 따라서 인세창조에 관한 이야기라서 천지개벽신화라는 명칭보다 창세시조신화라고 하는 것이 내용에 부합되며 인세시조에 관한 이야기는 단군, 주몽 등 국조신화와 동계를 이룬다¹⁾고 본다. 그러나 전국에 분포한 창세신화를 살피고 의미 분석을 하고자 하는 가운데 전국적인 자료 개괄을 하다 보니 제주도 창조신화는 일부만이 언급되었을 뿐이다.

현용준은 「천지왕본풀이」가 개벽신화임에 주목하였는데 이는 북방 계통이 아니라 남쪽에서 유입한 것이라고 한다. 즉 남방 문화와의 교류와 영향을 받아 성립한 것이라고 주장한다. 제주도 창조신화의 특징으로 천지분리신화와 射陽신화의 결합을 들고 있고 이러한 신화는 남중국과 대만, 동남아 쪽과 연결되는 면이 있으므로 쿠로시오 조류의 영향으로 남방 문화의 계통이 흘러 들어와 독자적인 개벽신화로 창출되었다²⁾고 본다.

장주근은 신화 중에서 순서상 그 첫머리를 장식하는 것은 세계 어디서나 창조신화이며 구약성경의 창세기에 보이는 천지창조신화나 그리스신화의 천지분리신화, 또 한국의 창조신화가 그러하다고 보고 있다. 이는 우리나라 무가에 다양하게 분포하며 특히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를 천지개벽신화로 일컫는다. 제주도의 창조신화가 내용과 신화소에 변화가 많지만 천지개벽, 수명장자 징치와 총명부인과의 결연, 부친 탐방, 인세차지 경쟁, 해와 달의 조정 등의 신화소로 구분하고 본토의 신화들과 비교·검토하고 있다. 한국 신화 속에서 창조신화의 발견은 오랜 역사성을 증명하는 것이며 세계적으로 창조신화는 모든 창조의 상징적 근원이기 때문에 치료, 잉태, 농경활동 등의 의례에서 구송되는 것이며, 한국의 창조신화도 생명의 원천, 우주의 질서 갱신, 기후 조절, 풍작의 상징적 의미들을 가창하는 종교의례의 한 구성요소였음³⁾을 말한다.

1) 서대석, 『한국 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223~253쪽.

2) 현용준,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제주도연구』5집, 제주도연구회, 1988. 40~41쪽.

3)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76~77쪽.

이수자는 초감제는 종합영신의례인데 이는 창세신에 대한 의례라 보고 있다. 특히 초감제의 「베포도업침」은 우주만물의 창생원리, 또는 창조원리를 담고 있는 것으로 제주도 큰굿을 형성한 집단이 창조한 천지창조 신화⁴⁾라고 보고 있다. 초감제 가운데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분리하여 연구한 대목은 논자가 관심을 가지고 추적하고자 하는 바이다.

김현선은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류의 창조신화에 대해 신화 자료를 모아 각 편에 나타난 신화소를 꼼꼼히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자료와 작업을 바탕으로 제주도 창조신화가 갖는 철학적 사고와 논리를 점검하여 우리 신화가 가지는 철학적 가치를 본격적인 개념 철학이 등장하기에 앞서 이룩된 원초적 사고의 생생함으로 든다.⁵⁾ 이 외에도 비교문학적 관점에서의 연구를 활발히 하고 있는데 이는 제주도를 중심으로 인접 민족의 창조신화를 찾아 확장하면서 제주신화의 중요성을 피력하려는 노력으로 보인다.

박종성은 「천지왕본풀이」를 태초의 일을 노래하는 제주의 창세서사시로 규정하며 이것은 천부지모의 결연형태가 종지용출하는 제주 본래의 신화 구조와 다르고 제주의 고유지명이나 마을이 등장하지 않는 점에서 제주도 본래의 것이 아니라고 본다.⁶⁾ 또한 창세신화에 대한 연구를 만족과 몽골, 한국의 창세신화 연구로 확장한다. 특히 몽골과 한국의 창세신화의 경우 그 유사한 영향관계를 전파론의 입장에서 논할 수 있지도 않을까하고 조심스럽게 언급한다.⁷⁾ 이러한 점은 현용준의 남방계통설과는 다른 동아시아 신화의 계통을 하나의 축으로 보는 신화분석이라 하겠다.

4)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97~104쪽.

5) 김현선,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2005, 258쪽.

6) 박종성, 「제주지역 「삼을라전승」과 「천지왕본풀이」」,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2호, 1999, 133~149쪽.

7) 박종성, 「동아시아의 창세신화 연구」, 『창조신화의 세계』, 소명출판, 2002, 151~152쪽.

제주도 창조신화인 「천지왕본풀이」는 선행연구자들에 의해 작품 내적·구조적 측면에서 연구되어 왔다. 다른 지역의 신화 양상과 비교하고 차이와 공통점을 찾아 고찰하기도 하며 대체적으로는 신화소의 분석을 통해 나타나는 화소들이 창조신화적 화소임을 밝혔다. 이들 화소들은 창조신의 성격과 모티프가 역사적 사회적 사실과 무관하지 않다고 보며 수렵·유목 생활과 농경생활의 두 축을 반영하거나 이주 집단과 토착 집단 간의 갈등이 드러나는 경우도 있었다. 신화가 민족이나 국가 단위로 전승되었다는 것을 고려한다면 역사적 사실을 반영하는 것은 자연스럽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의식이 출현하기 이전 시대의 산물으로써 이는 어떠한 문학작품과도 달리 무의식의 표출로 보는 연구는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고 하겠다.

본고에서는 선행연구에서 더 나아가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기반으로 제주도 무속신화의 창조적 성격을 밝힘으로써 제주도 무속신화를 다각적으로 바라보는 시도를 하고자 한다. 개인의 경험에서 한 번도 의식되어 본 적 없는, 인간의 누구에게나 발견되는 보편적인 내용이 집단적 무의식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러한 집단적 무의식이 나타나는 것이 신화이다. 그렇다면 역으로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을 살펴 신화를 이해하고 연구하는데 기여할 수 있으리라 본다. 이런 입장에서 창조신화를 본다면 의식의 출현이라 말할 수도 있을 것이고 의식의 출현은 곧 어둠 속의 빛의 출현, 세계의 출현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다. 제주도 무속신화에 나타나는 다양한 상징과 원형을 통해 창조신화적 성격과 의의를 찾고자 한다.

3. 「천지왕본풀이」와 「베포도업침」의 상관관계

지금까지 제주도 창조신화 연구는 대개 「천지왕본풀이」 중심이었다. 따라서 「천지왕본풀이」 앞에 구연되고 있는 「베포도업침」에 대한 연구는 배

제되거나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하나의 신화로서 초감제 전체를 무속의 제의 절차 가운데 창조신화의 성격을 가진 것으로 포괄적으로 연구되기도 했다. 다양한 선행연구에서 연구대상의 범주에 따라 신화해석의 시각이 달라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러한 문제는 연구 방법론의 차이이기도 하지만 연구 대상을 선정하는데 있어서 연구자의 견해가 반영되었기 때문에 당연한 것으로 본다. 대체로 「천지왕본풀이」를 중심으로 창조신화로서의 신화소를 연구하였으나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 각각의 상관관계를 밝힌 연구는 드물다. 이는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초감제라는 제의 과정으로 나란히 보았기 때문이다.

일찍이 서대석은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 각각의 신화적 특징을 언급하였다. 「베포도업침」과 같은 교술은 신화적 의미는 거세되었지만 천지개벽에 관한 설명이 무가의 기능적인 면에서 필요했다는 것이다. 천지가 형성된 이후 인간세상의 형성과 역사를 약술해야만 하는 이유는 창세를 주도한 신에 대한 제의에서 창세신에게 올리는 축원으로서 의미가 있기 때문이라고 보았다. 그러나 창세신화가 창세신에 대한 숭앙이 퇴조하고 곳거리에서도 창세신에 대한 제차가 없어지면서 구연 기회를 잃게 되면서 전승력을 상실하게 됨으로써 교술로 남게 된 것이라 보았다. 다만 제주의 경우 초감제 곳거리가 남아 있어서 창세신화로서 「베포도업침」이 전승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창세신화가 사라지고 교술무가인 「베포도업침」이 남아있다는 전제는, 제차가 확보된 제주도의 경우 창세신화 전승이 활발하다는 문맥에서 모호함을 낳는다. 이는 「베포도업침」을 창조신화로서 본다는 말인지 「천지왕본풀이」가 창세시조신화로서 전승이 활발한 대신 창세신화로써 「베포도업침」의 모습이 사라졌다는 것인지 애매하다.

이수자도 초감제의 「베포도업침」이 창조신화의 면모를 지녔다고 보았다. 제주도 큰굿집단은 우주적 차원의 본원적 궁극증을 가지고 있었고 「베포도업침」에는 이를 해명해 보고자 하는 노력을 했다는 것을 알게 한다

고 말한 바 있다. 김헌선은 이러한 논의에서 한발 더 나아가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의 엄격한 구분의 필요성을 주장함과 더불어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관계를 성경의 창세기를 빌어 설명했는데 「베포도업침」이 원형신화이고, 「천지왕본풀이」는 원형신화 가운데 일부를 차용하여 계승하여 독자적으로 구성한 신화라고 밝히고 있다.

이처럼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상호 관계는 각각 별개의 신화라는 의견에 무게 중심이 가며 창조신화적 성격을 지닌 데에 부정하지 않는다. 본고 역시 「베포도업침」이 초감제에 구연되나 「천지왕본풀이」와는 독립적인 신화라고 본다. 더 나아가 「베포도업침」은 지금의 「천지왕본풀이」의 일부가 포함된 형태의 것으로 그것이 원형신화는 아니었을까 하는 궁금증을 가져본다. 이러한 궁금증을 풀기 위해 제주도 창조신화 연구에서 일반적으로 「천지왕본풀이」로 일컬어지는 채록 자료를, 채록 각편에서 보이는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로 나누어 각 용어의 정의와 범주를 밝히고자 한다. 또 본고에서는 제주도 창조신화 연구를 「천지왕본풀이」나 초감제 전체를 분석 대상으로 삼고 논의해 온 종래의 연구를 지양하고 「베포도업침」에 나타난 창조신화적 성격을 찾아보고자 한다. 창조신화적 신화소를 중심으로 본다면 「베포도업침」이 「천지왕본풀이」보다 오히려 창조신화적 성격을 갖는다고 보는데 「베포도업침」에는 창조신화의 본래의 의미에 맞게 천지개벽, 넓게는 우주창조에 대한 전개가 나오고 천지왕을 비롯해 대별왕·소별왕 등의 신들이 출현한다. 그리고 미미하나마 인간 세계의 창조의 신화소가 나타나기 때문이다.

제주도의 「천지왕본풀이」는 큰 곳의 제의 절차 가운데 초감제에서 구연된다. 초감제는 신을 곳의 처음에 모든 신들을 하강시켜 제의에 모셔들이는 청신의례로 하늘과 땅이라는 신과 인간의 거리를 좁히는 하강의 식으로 곳이 이뤄지는 제의 절차나 연회성이 그 성격으로 파악될 수 있

8) 문무병, 『제주도 무속사전-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63쪽.

을 것이다. 제주도는 아직도 창세신화를 곳에서 재현하고 전승하고 있는데 문헌으로 정착된 다른 창조신화에 비하면 그 현장성을 간과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본고는 곳의 연회적 특성과 구연 상황에 대한 논의는 일단 차치하고 채록된 무속신화의 신화소와 그 서사적 의미를 중심으로 신화의 창조적 성격을 밝히고자 한다.

제주도 창조신화라 일컫는 부분은 초감제의 처음 부분에 나와 있는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말한다. 그러나 이 둘의 내용도 채록된 각 편에 따라 분리하여 채록되는가 하면 한 편처럼 연이어 채록되기도 하고 각각 채록되기도 한다. 이것은 채록자의 관점과 관심의 표현이라고 볼 수도 있으나 구연상황이 다양했기 때문에 다양한 형태로 채록되어 전해지는 것이라고 볼 수도 있다. 구연상황이 다양하다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향유하고 구연되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채록된 각 편을 내용 구성에 따라 간략하게 네 가지로 나누어 정리하였는데 제의적 상황은 정확히 알 수 없으므로 이를 배제하고 채록된 자료만을 가지고 내용에 따라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A. 베포도업침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는 경우
: 초감제(고창학), 초감제(강태욱), 초감제(김병효)
- B. 천지왕본풀이에 해당하는 부분만 있는 경우
: 천지왕본풀이(이무생)
- C. A와 B가 연결되어 있는 경우
: 천지도업(고대중), 베포도업침(강일생)
- D. A와 B가 분리되어 있는 경우
: 초감제본-천지왕본(문창현 필사), 초감제-천지왕본풀이(박봉춘),
초감제-천지왕본(김두원 필사),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안사인/정주병)⁹⁾

9) 김현선, 앞의 책, 제6부 창세신화 채록자료 참조. 참조한 자료는 자료명과 구연자, 채록자, 출처와 채록 연대 등의 항목으로 구분하여 아래의 도표에 정리함.

A는 초감제라고 기록되어 있으나 이것은 제차 의례의 초감제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베포도업침」에 해당하는 부분이다. 천지개벽과 월일조정 신화소가 주를 이룬다. 또 각 편에 모두 대별왕과 소별왕이 저승과 이승을 차지했다는 부분이 나온다.

B는 수명장자가 등장하는 부분부터 나오는 것으로 천지왕이 지상에 내려와 수명장자를 징치하려 하였지만 못하고 서수암이(비구왕과 총명부인의 딸)와의 결연, 대별왕 소별왕의 부친탐색, 인세차지경쟁 신화소가 나타난다.

C는 천지개벽에서부터 일월조정,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가 하나의 연속된 이야기로 되어 있다. 그러나 B에서 보이던 수명장자 징치, 천부지모 결연, 부친탐색 신화소는 보이지 않는다.

D는 A와 B를 나란히 놓은 것으로 볼 수 있는데 동일 제의지만 분리해서 구연하고 있다. 채록 자료에서 보면 구연한 심방이 같아도 각각의 본으로 채록되어 있고 심지어 전혀 다른 심방이 구연한 것-「베포도업」(안사인), 「천지왕본풀이」(정주병)의 경우-을 나란히 채록해 놓은 경우도 있다.

번호	자료명	구연자	채록자	자료 출처	발표연대
1	초감제본-천지왕본		문창현	풍속무음	1929-45
2	초감제-천지왕본풀이	박봉춘	亦松至誠 秋集隆	조선무속의 연구	1937
3	초감제-천지왕본		김두원	제주무가집	1963
7	천지왕본	이무생	진성기	남국의 무가	1968
5	천지도업	고대중	장주근	한국의 민간신앙	1973
6	베포도업침	강일생	임석재	제주도 17호	1974
4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	안사인 정주병	현용준	제주도무속자료사전	1980
8	초감제	고창학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9	초감제	강태욱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10	초감제	김병효	진성기	제주도무가본풀이사전	1991

이상과 같이 채록된 각편을 살펴보면 지칭하는 용어의 애매함을 발견할 수 있다. 먼저 「초감제」,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는 각각 지칭하는 바가 무엇인가 하는 문제이다. 채록된 각 편에 보이는 「초감제」는 제차의 하나가 아니라 「베포도업침」을 가리키는 말이다. 논의를 전개할 때 제차의 하나인지 신화인지 자칫 혼란을 줄 수 있으므로 「초감제」라는 용어를 지양하고 천지개벽, 일월조정 신화소가 포함된 신화를 「베포도업침」이라고 칭해야 할 것이다. 또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이어서 구연한 채록 자료에서는 이것을 천지도업이라고도 했는데 여기에는 「베포도업침」의 신화소와 대별왕·소별왕의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는 포함되어 있지만 천지왕에 관한 서사만 빠져 있어서 이것 역시 「베포도업침」으로 구분해야 한다고 본다. 반면 천지왕의 내력을 담고 있는 것에는 모두 공통적으로 「천지왕본풀이」라고 하고 있다.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소를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베포도업침」(A와 C의 경우를 종합)

- ① 천지혼돈
- ② 천지개벽
- ③ 일월조정
- ④ 저승과 이승 차지/인세차지 경쟁

「천지왕본풀이」(B와 D의 천지왕본풀이 부분은 거의 일치함)

- ① 수명장자 징치
- ② 천부지모 실연
- ③ 부친 탐색
- ④ 인세차지 경쟁
- ⑤ 일월조정

종합해 보면, 「베포도업침」만 채록된 각편에는 천지개벽, 일월조정 및

대별왕·소별왕의 저승과 이승차지 신화소가 나오고 「천지왕본풀이」만 채록된 각편에는 천지왕을 중심으로 수명장자 징치, 천부지모 결연, 부친탐색,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가 나온다.

반면에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하나의 신화로 이어진 것에는 「베포도업침」 신화소에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가 구체적으로 더해져서 창조신화로서의 형태를 갖추고 있다. 「천지왕본풀이」의 주요 내용인 천지왕 중심의 수명장자 징치나 천부지모 결연, 부친탐색 신화소는 나타나지 않는다. 또 이 신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천지도업>, 「베포도업침」으로써 「천지왕본풀이」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각 편을 지칭할 때 「베포도업침」이라고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마지막으로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를 나란히 병치한 채록 자료는 동일한 제의에서 불린 것이지만 각각 분리해서 채록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내용면에서도 확실한 구분을 해 놓고 있다. 여기에 해당하는 각편에서는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분명하게 구분되어 채록되었고 「베포도업침」 일부에선 저승과 이승차지 내용이 기술된다. 다만 김두원 필사본에만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에 각각 일월조정 신화소가 나오는데 일월조정자의 호칭은 다르다. 채록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따로 기술되어 있다고 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신화를 지칭하는 용어는 각각 「베포도업침」, 「천지왕본풀이」이다.

용어 정의에 있어서 또 다른 가설은 앞에서 살핀 네 가지 분류에서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연결되어 있는 C의 경우가 본래의 「베포도업침」으로써 창조신화의 원형신화에 가까운 형태로 보는 것이다. 또 천지왕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원형신화와 별개로 「천지왕본풀이」로 불린 것이 아닌가하는 것이다.

「베포도업침」은 각편마다 차이는 있지만 천지 혼돈, 천지개벽, 천지인도업, 일월성도업 등 우주의 창조와 신창조, 그리고 미미하나마 인간 창조에

이르기까지 창조신화의 본래의 의미에 충실한 신화이다. 천지혼합은 하늘과 땅이 나누어지지 않고 한 덩어리라는 뜻으로 다른 말로 혼돈이라고도 하며 이와 대립되는 것은 천지개벽으로 천지혼합이던 때에 하늘과 땅 사이에 띄움 같은 곱이 나면서 분리가 되고 별들이 생겨나고 인간사람과 만물이 생겨나는 것으로 구연되는 「베포도업침」의 내용은 창조신화에 어떤 의심도 낳지 않는다.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연결되어 있는 C의 「베포도업침」에서는 간략하게 기술되는 대별왕 소별왕의 저승·이승차지 도업이 인세차지 경쟁으로 구체화하여 자연스럽게 구연하고 있다. 「베포도업침」에는 천지개벽, 일월조정 등 우주창조에서부터 인간탄생과 자연만물에 이르기까지 우주적 질서를 중심으로 창조신화의 의미를 실현한다고 볼 수 있다. 다만 C의 경우에는 「천지왕본풀이」에서 보이는 수명장자 장치, 천부지모 결연, 부친탐색 등의 세 가지의 신화소를 제외한 체 여느 각 편보다 완벽한 창조신화의 모습을 갖추고 있다.

반면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소를 살펴보면 수명장자 장치, 천부지모 결연, 부친탐색,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가 나오는데 한마디로 천지왕의 내력을 말하는 것이라 하겠다. 먼저 수명장자 장치담은 악행을 저지르는 자에 대한 응징으로 각 편에 따라 생물기원담이 되기도 한다. 그러나 무엇보다 이 신화소의 존재 이유는 창조신화적 성격을 띤 것이라기보다 뒤에 이어져 나올 천부지모 결연을 위한 이야기 설정 장치처럼 보인다. 즉 천지왕이 수명장자를 응징하기 위해 지상으로 내려오게 되는 것이고 이런 하강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 지상의 여성과 결연하게 되는 것이다. 이렇게 이어지는 천부지모 결연의 신화소는 창조신화만의 특징은 아니고 다수의 문헌신화나 구전신화에서 두루 발견된다. 천상의 남성과 지상의 여성의 결합은 건국신화에도 자주 등장하는 신화소이다. 이는 창조적 성격이 완전히 배제된 것이 아니어서 크게 창세기조신화라 할 수도 있겠으나 시조신화 성격이 강하여 본고에서 바라보는 창조신화의 성격과는 거리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천부지모 결연은 결국 지상에서 어머니한테 남겨진 자식이 주위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홀대를 받아 결국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 의문을 갖고 찾아 나서게 된다. 이러한 부친탐색 신화소에는 부자지간임을 증명할 수 있는 본베본짱과 천상에 다다를 수 있는 꼭씨가 있다. 이 서사는 주몽신화에서 우리가 아버지가 남긴 수수께끼의 증거품을 찾아 주몽을 찾아가는 것과 일치한다. 여기까지의 신화소만 본다면 이것은 창조신화의 면모보다는 영웅설화에 더 가까운 모습이다. 「천지왕본풀이」의 뒷부분에 나오는 일월조정 신화소와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가 없다면 수명장자 징치, 천부지모 결연, 부친탐색의 신화소만으로는 건국신화나 영웅신화의 면모만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또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나란히 병치된 D의 경우는 등장한 신의 명칭이 같아 연계되었다는 추측을 낳을 뿐이지 「천지왕본풀이」에서의 내용이 간략하게 이미 「베포도업침」에서 서술하고 있기 때문에 내용상으로도 중복된다. 그렇다면 문맥적으로도 연속되지 않는 두 신화가 왜 나란히 놓여 있는 것일까? 여기에는 탐라 입도 고려·고구려계 집단의 영향력에 대해서 언급했던 박종성의 주장을 생각할 수 있다. 거기에는 고려·고구려계 집단 세력과 삼울라 전승의 연관을 밝히려 하였고, 초감제에서 고구려, 고려를 유독 강조한 부분이 등장하는 것도 고려·고구려계 집단의 입도와 그들의 입지를 굳히는 것과 같은 맥락이라고 한다. 따라서 제주 고유의 신화 속에 고려·고구려계 신화를 전승하고 자신들의 역사를 노래한 것으로 본다. 결국 제주에 이미 독자적인 신화체계를 가지고 있었으나 자신들의 이야기를 편재하여 결합시킨 것이다. 따라서 「베포도업침」과 「천지왕본풀이」가 나란히 병치된 D의 경우는 원형신화인 「베포도업침」 C와 고려·고구려계통 신화인 「천지왕본풀이」가 결합된 형태인 것으로 보인다.

우선 그 근거로 묘제 양식을 들 수 있다. 제주도에서 발굴된 묘제 양식은 석곽묘 양식인데 이 묘제 양식은 지역적으로 가까운 남해안의 같은 시기의 묘제 양식과 전혀 다르다. 오히려 압록강 유역의 고구려 지방에서 기원후 1~3세기 경에 축조된 무덤 양식이 제주도의 것과 유사하다.¹⁰⁾ 묘제는 가장 보수적이고 오랜 기간 유지되는 문화적 관습임을 고려할 때 지역적으로 멀리 떨어진 고구려와 제주도의 묘제 사이의 상관관계는 고구려 집단의 이주·입도 가능성을 높여 주는 것¹¹⁾이라고 볼 수 있다. 이와 더불어서 제주도에는 청동기 문화의 유입 없이 초기철기문화가 아닌 한식철기문화가 유입되었는데 이것 역시 고구려 석곽묘의 시기와 일치한다. 이것은 단순히 우연의 일치로 보기보다 고구려가 철기 문화가 우수했던 국가였음을 감안할 때 그 관련성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즉 부여·고구려계 출자 집단의 입도를 사실이라 할 수 있으며 이들은 자신들의 입지를 확고히 하고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의 역사를 노래하는 것이 당연하다고 여기고 부여·고구려계 신화인 '제석본풀이'형으로 변천을 시도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제주의 특별한 신앙체계가 이미 자리하고 있었으나 제주가 고구려를 계승하는 고려에 편입된 후에는 독자적인 신화구조와 내용을 전승하기보다 고려와 제주는 하나의 근원에서 시작했다는 점을 부각시키면서 고려의 신화내용이 습합되었던 것으로 본다. 「천지왕본풀이」의 신화소들은 제주신화의 특징이 아니라 주몽·유리 이야기에 가깝다. 그렇다면 D의 「천지왕본풀이」에 대한 궁금증이 조금은 풀리지 않을까 한다.

결국 제주도 창조신화의 원형은 C의 형태였으나 신화를 향유하는 집단 가운데 고구려·고려계 집단이 제주에 유입되고 그들이 세력을 확장하는 과정에서 고구려 건국신화의 신화소가 잔재하게 되므로써 앞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고구려 건국신화와 닮은 「천지왕본풀이」로 전승된 것으로 본

10)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1995, 254~255쪽.

11) 박종성, 앞의 논문, 122쪽.

다. 제주도 창조신화의 원형은 천지왕의 내력을 설명하는 수명장자 장치, 천부지모 결연, 부친탐색 신화소가 빠진 C의 경우이고, 「천지왕본풀이」는 단순히 천지왕이야기가 본풀이에 삽입된 것이기 때문에 시조신화적 성격은 지니고 있으나 창조신화적 성격은 미비하게 된 것이라고 본다. 원형 신화인 C의 경우를 통칭하여 「베포도업침」이라 할 수 있겠는데 A의 「베포도업침」이나 D의 「베포도업침」의 형태로 남게 된 이유는 '천지왕이야기'가 전승되면서 전승집단의 강력한 전승의지에 따라 원형 신화에 습합하거나 신화소의 분리가 일어나고 결국은 동명(同名)의 주인공인 천지왕, 대별왕, 소별왕이 등장하는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는 독립적으로 「천지왕본풀이」로 제의에서 불리게 된 것이라고 본다.

4. 「베포도업침」의 창조신화적 성격

앞에서 제주도 창조신화의 원형을 추정해 보았다. 내용구성상 분류를 한 것처럼 모든 본풀이가 원형신화로 추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니었고 크게 네 가지로 나누었을 때 C의 경우를 원형신화로 추정해 볼 수 있다. C의 경우에는 「천지왕본풀이」보다 창조신화의 성격을 드러난다고 하겠는데 천지개벽, 일월조정, 저승과 이승차지 도업, 나아가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를 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는 고대중 구연의 「천지도업」과 강일생 구연의 「베포도업침」을 들 수 있다.¹²⁾ 이하 문맥에서는 C의 경우에 해당하는 두 채록 자료를 묶어 「베포도업침」이라 칭하고 창조신화적 성격을 밝혀 나가고자 한다.

12) 여기에서 언급한 「베포도업침」은 본고에서 살펴본 채록 자료 가운데서 C의 유형으로 분류된 것으로 텍스트로 사용된 자료 이외에 지금까지 채록된 다양한 채록 자료를 살펴보면 좀 더 다양한 자료가 나타날 것으로 보인다.

이를 신화소로 나누어 보면 다음과 같다.

- 1) 천지개벽
- 2) 일월성도입
- 3) 일월조정
- 4) 인세차지 경쟁

크게 네 부분으로 나누어진 신화소의 내용을 살펴보면 각각 아래와 같다. 먼저 천지개벽 신화소에 해당하는 단락이다.¹³⁾

천지혼합으로 제일입네다. 천지개백으로 제일입네다.
 천지개백으로 제일이니 혼합시 시절에
 하늘과 따사이에 떡징굴이 굽이납네다.
 굽이나니 천근이 지르고 지력이 축하니
 갑을동방으로 갑자생인이 솟아나 하늘머리를 지두툼고
 을축방으로 을축생인이 솟아나 땅의머리를 지눗추니
 경신서방으로 머리숫제 뇌염들여옴대다.
 병년남방으로 날계익제 날개틀러옴대다.
 해서북방을고 건설하니 동성개문 남성개문 북성개문
 상성개문 도업으로 제일입네다. 상경개문 도업으로
 제일이니 디딘이도 삼호늘 잉은어도 삼호늘
 삼십삼천 서른시하늘 도업옴네다
 호날로는 청이슬이느리고 지애로는 흑이슬이솟아오르고
 천지인양지 도업입네다. 서른시호늘 도업호니.

(고대중 구연, 「천지도업」, 415~416쪽.)

13) 여기에 인용된 채록 자료는 김현선의 『한국의 창세신화』(도서출판 길벗, 1994) 자료편에 정리된 고대중 구연의 「천지도업」과 강일생 구연의 「베포도업침」이다. 각 편에 대한 각주를 이것으로 대신한다. 인용된 채록자료를 현대어로 바꾸는 작업은 추후에 실기로 하겠다.

인날 인적이여 금시상 하늘광 땅이 천지 이망이 되면 뉘 귀 증속 하늘광
땅이 맞붙어 밤도 왁왁 낮도 왁왁
요 금시상 도업이 아니란
흐룻날은 동방으로 머릴 들러
서방으로 초릴 들러
남방으로 놀겔 들러
북방으로 놀겔 들러
들렷하게 떡징굴이 하늘광 땅이 곱이 낮
이 하늘은 뭍고 뭍은 금 하늘이여마는
하늘광 땅 두 새는 구만리 주왜라
넘이광 장광 두 햇질은 구만리 질인디
하늘과 땅 두 새엔 무신계 곱이라
산이지중 골룡산
물이지중 황해수
이 하늘은 뭍고 뭍은 하늘이여마는
벼름도 웃고 구름도 웃고 벨도 웃고 돌도 웃고 해도 웃는 하늘
하룻날은 동방으로 청구름이 놀망놀망 뜨고 온다
서방으로 백구름이 뜨고 온다
남방으로 적구름이 뜨고 온다
북방으로 흑구름이 뜨고 온다
천지 중앙으로 갈매 옥석 번구름이 놀망놀망 뜨고 온다
갈매 옥석 번구름이 초감제이 연두리로 천지 도업 제일러

(강일생 구연, 「베포도업침」, 415~416쪽.)

「베포도업침」에서는 가장 먼저 천지개벽 과정이 나타난다. 하늘과 땅이 맞붙어 밤도 낮도 없는 칠혹같은 어둠이었다가 ‘떡징같은 곱’이 나 맑고 맑은 하늘이 등장한다. 천지가 혼합되어 한 묶음이었다가 하늘이 열리고 땅이 생기며 인간이 생겨난 도업을 이르는 과정에서 하늘과 땅이 마치 ‘떡징처럼 곱’이 난다는 것은 분리 의식의 발생이라고 볼 수 있다. 곱은

겹이나 뭉을 뜻하는 제주어이다. '떡징같은 굵'은 떡시루의 쪄 같은 겹, 즉 겹겹이 층층이 나뉘지는 모양을 나타낸 말이다. 하늘과 땅이 나뉘지는 것이 하나의 층, 겹이 생겨나는 것으로 경계를 묘사한 말이다. 나뉘지고 분리된다는 말은 분간할 수 없는 한 묶음, 한 덩어리, 혼돈과 어둠으로부터 우주의 질서가 생겨나고 어둠과 빛의 구분이 발생하는 것을 의미한다. 우주와 세계의 구분과 경계를 떡의 쪄 같은 겹과 층을 의미하는 굵으로 표현하고 있는 것이다. 존재를 구분할 수 없는 한 덩어리의 세계에서 하늘과 땅이 열리고 인간이 생겨남을 표현하는 것과 동시에 세계의 분리, 개체를 인식하는 의식의 출현을 '떡징같은 굵'이 난다고 한다. 제주어에서 굵의 다른 의미가 사리 분별이라는 것을 고려한다면 의식의 출현이라는 상황과 절묘하게 들어맞는 말이기도 하다. 제주어 가운데 '굵 갈르다'는 말은 '사리를 분별하여 한계를 짓다'라는 의미로 쓰이는 데 분리와 경계, 나눔의 의미와 의식의 출현을 적절하게 표현한 것이라 하겠다. 의식의 출현이야말로 심리학적으로 창조의 의미를 나타내는 것이다. 세계의 창조신화는 공통적으로 혼돈과 어둠에서부터 출발하는데 이는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이 출현하는 것을 뜻한다. 이것과 저것을 구분하는 의식이 존재하지 않으면 세계도 존재하지 않는다. 반대로 하늘과 땅의 굵의 경계는 세계의 탄생인 동시에 빛과 밝음, 어둠을 인식하는 의식과 무의식의 경계가 발생하는 것으로 의식의 출현이라 할 수 있다.

하늘의 청이슬과 땅의 흑이슬이 합수될 때 비로소 천지인(天地人)의 도업이 완성되고 청구름, 적구름, 백구름, 흑구름이 떠 와 '바람도 구름도 별도 달도 해도 없는 묶은 하늘'에 존재의 가치를 알리며 도업을 이룬다. 하늘과 땅의 경계로 존재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주의 구성 요소가 발생하면서 우주 창조를 구체적으로 보여준다. 동서남북 사방이 열리는 모습은 새의 형상을 빌어 '목을 들고 날개치고 꼬리를 치고 녀염'을 보이는 모습으로 구체화시킨다. 새나 닭은 의식이나 빛을 형상화하는 것으로 지상에서

하늘로 비상하는 동물이다. 「베포도업침」에서 천지개벽이 새의 형상을 빌어 전개되는 것은 새나 닭이 지닌 상징성, 즉 의식과 빛을 상징하는 것으로 보인다. 「베포도업침」 서두에 천지혼합 시절에 하늘과 땅 사이에 '떡징 7찌 굽이' 나오는 것은 분리와 구분을 인식하는 것으로 무의식에서 의식의 출현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갑을동방으로 삼태성벨이 뜨고웁대다.
경신서방으로 태백성벨이 뜨고
병오남방으로 무인벨이 뜨고
해저북방으로 북두칠성 일곱성군 별이 뜬대다.
진우이에 별이요 진아랜 세별하니
삼태육성 선오성 별지도업으로 제일입니다.
별이나니 인방으로 인하여 인간사람이 솟아나고
축방으로는 축하니 만물이 해유작하니 만물이솟아나니
(고대중 구연, <천지도업>, 416쪽.)

동방으로는 동 새벨이 뜨고 온다
서방으론 타광성이 뜨고 온다
남방으로 노인성이 뜨고 온다
북방으로 일곱 칠성도 칠성 방울방울 뜨고 온다
이십팔숙 성주 생벨 등실등실 뜨고 오니
초감제어 연드리로 이십팔숙 성주 성벨도업 제이르자
초감제어 연드리로 천지 도업 제이르자
(강일생 구연, 「베포도업침」, 422쪽.)

「베포도업침」에는 어둠과 혼돈에서 한 묶음으로 되어 있던 것들이 분리되고 구분되고 발생된다. 하늘과 땅을 구분 짓고 어둠 속에서 별과 해, 달이 발생하면서 세계를 인식하는 의식이 출현하게 된다. 일월성도업에서는 동서남북 사방에 맞추어 별이 탄생하는데 특히나 해와 달이 생겨나기

이전에 별들이 생겨나고 이후에 인간과 만물이 발생한다. 수많은 분리와 곱이 생기는 구분의 과정은 세계창조의 과정임을 강조한다. 세계가 존재하는 것은 분리와 구분을 가르고 인식에 의해 존재하는데 어둠은 그 어떤 것도 인식할 수 없다. 따라서 세계의 기원과 출현을 보여주는 창조신화는 무의식으로부터 의식이 출현하는 의미를 지닌다. 이것은 개체발생이 계통발생을 되풀이한다는 정의에 부합하는 것이기도 하다.

밤도 왁왁 일목공 낮도 왁왁 일목공
 신경 초경 곱을 모릅대다. 곱므를 때에
 천지왕아들이 감오왕께 장개들 때 집뽀 사례로서
 혼하늘에 해도 하나 둘도 하나 내보내젠흐니
 지보왕이선 기뽀생각으로 혼하늘에 해도 둘 내보내고
 둘도 둘 내보내니 밤이는 인간백성이 곳아서 죽고
 낮이는 인간백성이 좃아 죽을 때에
 천지왕아들 대터락대별왕 소터락소별왕
 대별왕은 형이요 소별왕은 아시오
 대소별왕이 천근들이 쌀을 묵고 백근들이 활을 무어
 어니똥두짓눌러 월광들이 뜨고올 때 앞이월광은 생기고
 뒤에 월광 맞쳐다가 동이유왕 진두뽀제호고
 일광들이 뜨고올 때 앞이 일광은 생기고
 뒤에 일광은 맞쳐다가 서이와당 진두뽀제흐니
 혼하늘 해도 하나 혼하늘 둘도 하나 마련흐니
 일광도 도업입니다 월광도 도업입내다.
 월일광 도업으로 제일이니
 혼하늘 해하나 혼하늘 둘하나 마련흐내다
 천지왕이서 대소별왕안티 전갈느리테
 대별왕이랑 금시상법을 다시리고
 소별왕이랑 저승법을 오라서 다시리라 전갈느리니
 소별왕은 금시상법을 다시리저호고 대별왕안티말씀흐데
 성운성임 꽃동이를 내싱겨서

꽃이 번성 되는대로 금시상법을 다시리고
 검을꽃 되는대로 저승법 다시리기 언아어찌호오리카
 걸랑 그리호라
 ……중략……

형님이 아시보고 꽃동이를 바꾸어놓았다 아니호고
 설운아시 금시상법 지녀서 살기랑살라마는 금시상법은
 배에는 수적도 많호고 못되는 강적도 많호고
 有夫女通姦 姦夫갈런 살린살이 많호리라. 저승법은
 주년이라. 참실굴은 법일러라. 이수훈장 법일러라.
 한번 가민 다시 올줄 모르신 법일로라.
 나는 저승법 지녀살져 옥황상저의 올라가노라.
 아시랑 금시상법 지녀 살라
 대별왕도 도업이외다 소별왕도 도업이외다.
 대소별왕도 도업입내다.
 ……하략……

(고대중 구연, 「천지도업」, 416~418쪽.)

옥황의 천지왕 아들이 삼 성제가 솟아진다.
 큰 아들은 대별왕 셋 아들은 소별왕 말젓 아들은 돌림 마누라
 큰 아들이랑 인간을 느리라
 셋 아들이랑 저싱국을 들어가라
 말젓 아들이랑 인간 돌림 마누라로 들어서라
 소별왕이 말음 흡을
 큰 성님아 성님이랑 저싱을 들어갑서 날랑 인간을 느리쿠다
 서룬 아시야 부모양외신의 부모 말씀올 거실수가 시냐?
 정 말랑 성님아 읍서 예숙이나 췌겨보게 예숙에랑 지는 거랑도 저싱국을
 들어 가곡
 이기는 즈랑 인간을 느립시다
 ……중략……
 천지왕이 은 쟁반을 내어놓아 고씨 열 씨를 내어놓아
 은 쟁반에 흡께로 놓와서 곳을 싱겨봐라

.....중략.....

나 심근곳은 환생곳에 번성곳 되고 성님 심근 곳은 벨망곳에 악심곳 되니
무가내로 성님이랑 저싱을 들어잡서 날랑 인간을 좇이 흘쿠다
어서 나는 저싱을 가갸나 널랑 인간을 느리고 보아라 인간도업이 아니다

.....중략.....

소벨왕은 인간을 느련보난
아닐카 혼 하늘에 해가 둘 혼 하늘에 돌이 돌
인간백성이 낮인 좇아죽어 밤인 열어 고사죽어

.....중략.....

큰 성님아 큰 성님아 인간을 느려보난 범지법이 아님되다

.....중략.....

인간을 또 느리난 대벨왕은 활 잘 쏘는 유국 유줄 느리우고
천년 썩에 백년 환을 아사 물려 인간을 내리우고 앞에 오는 월애님을 생
겨두고

위에 오는 월애님을 썩 한 대를 매고 쏘와난
동이 와당 해돈국에 지부치고
썩 혼 대를 매고 앞에 오는 일광을 생겨 두고 위에 오는 일광을 쏘와다가
서이 와당 관덕왕은
돌진국을 지부치난
혼 하늘에 월애님도 혼나 일광님도 혼나
월애님 뒤으론 칠월이라 칠석일이
오작교로 뜨릴 놓아
임양지 도업범 천지도업범 제이르자

(강일생 구연, 『베포도업침』, 425~426쪽.)

심리학적으로 본다면 대립적 두 경향 즉 양극성은 의식 이전의 무의식 단계에서 의식의 출현을 향한 경향과 이를 무의식으로 돌리려는 반대 경향이 함께 작용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즉 의식의 출현을 반대하는 경향을 넘어 섰을 때 비로소 의식하게 되는 것이다. 『베포도업침』에서는 일월조정의 신화소와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가 전개되는데 이때에 모두 대별왕

소별왕이 등장한다.

대별왕, 소별왕 같은 쌍둥이로 나타나는 것은 제주신화만의 특징은 아니다. 세계의 신화에서 쌍둥이의 등장은 자주 볼 수 있다. 쌍둥이 모티프의 전세계적 분포는 신화가 인간의 정신, 무의식의 반영이라는 입장에서 보면 인간 정신의 양태와 관계있는 것으로 보인다. 혼돈에서 창조가 이뤄질 때 창조와 반창조(파괴)의 경쟁이나 싸움이 형성된다. 이처럼 대립된 두 힘의 성격을 잘 드러낼 수 있는 것이 쌍둥이라고 할 수 있다. 대별왕과 소별왕의 경우 인세차지 경쟁에서 대립된 두 힘의 존재는 창조와 반창조(파괴)의 경우라 하겠고 이는 선과 악, 저승과 이승 등으로 표현되고 있다.

대별왕, 소별왕이 창조신화에 나타나는 것은 양극성을 지닌 정신 즉 본성의 성격과 관계가 있을 것이다. 전체로서의 정신은 무의식과 의식, 어둠과 밝음, 강함과 부드러움, 선과 악, 창조와 파괴 등의 혼재된 상태, 양극의 합일된 상태로 존재한다. 그러나 이런 합일된 정신은 의식에서 유지될 수도 인정하지도 않는다. 의식 상태에서는 어느 것 하나를 지지하게 된다. 남자이면서 여자, 아름다우면서 동시에 미운 것은 모순으로 여기고 존재할 수 없다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바로 의식이다. 어느 것 하나를 지지하는 의식의 출현은 갈등과 긴장을 수반한다. 그리고 이것은 경쟁과 대립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갈등 후에 어느 쪽 하나가 적극성을 발휘하면 순간 한쪽은 물러나게 된다. 대립적인 한 쌍의 쌍둥이는 정신의 대극을 나타내는 것으로 적극적인 한 쪽이 현생(인세)을 차지하고 그렇지 못한 한 쪽은 저승으로 물러나게 된다. 또한 정신은 이를 극복하려고 작용한다. 소별왕이 대별왕이 잠든 사이 형의 환생꽃(빈성꽃)은 자기에게, 자신의 검뉴울꽃(멜망곳)은 형 앞에 가도록 바꾼다. 순간 대별왕은 모든 내기에서 앞서다가 꽃가꾸기에서 지고 저승으로 물러나지만 소별왕이 지배하는 인세는 수적도 많고 강적도

많은 살인역적이 많은 세상이 되리라 예언한다. 또 다른 한쪽이 이를 극하려는 긴장과 갈등이 수반되는 것이 바로 의식의 출현이기 때문이다.

5. 마무리

창조라는 말을 단순히 인류의 정신발달사 초기에 형성된 신화에만 국한하여 사용할 필요가 없다. 창조는 의식의 출현으로 인하여 세계를 의식하게 되는 것에 해당한다. 창조는 한 집단의 의식의 출현, 획득이라는 심리적 사실뿐만 아니라 새로운 세계의 발견을 나타낸다.

즉 창조신화는 실제의 우주나 세계의 기원을 다루는 것이 아니라 원시 심성의 주체에 의하여 무의식적으로 지각하는 세계의 기원을 묘사한 것이다. 각 집단 민족마다 각기 고유한 집단적 토양에서 제각기 다른 의식의 분화와 정립의 과정을 거치며 세계를 인식하기까지 다양한 창조신화를 형성한다. 이는 하나의 우주, 하나의 세계에 대하여 다양하고 많은 창조신화가 있음이 증명한다.

제주도 곳의 제의 가운데 초감제의 「베포도업침」은 창조신화의 원형신화라 할 수 있고 전승집단의 전승의지에 따라 변형을 이루기는 했지만 신화소 분석을 통해 원형을 추정해 볼 수 있다. 「베포도업침」에는 천지개벽과 우주만물과 사람, 사물의 탄생, 해도 둘, 달도 둘인 세상을 조정하는 우주 창조에 관한 내용을 자세히 표현하고 있다. 이는 분리와 구분의 과정을 인식하면서 인간정신의 전체 가운데 무의식에 의식의 출현을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을 것이다. 일월조정과 대별왕과 소별왕의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에서는 창조와 파괴, 선과 악, 밝음과 어둠과 같은 대극의 갈등과 경쟁이 의식의 출현을 위한 정신 활동이며 이러한 갈등 후에 의식의 수면 위로 떠오르는 것을 살펴보았다. 창조신화의 핵심은 혼돈-창조의 반

복과정이라고 할 것이다. 제주신화 「베포도업침」도 창조신화의 핵심적 성격인 혼돈-창조의 갈등이 드러나며 무의식의 상태에서 의식의 출현을 천지개벽과 일월조정, 인세차지 경쟁 신화소들에서 곱가르기와 대별왕과 소별왕의 꽃 피우기 등에서 확인하였다.

또 「베포도업침」은 초감제의 의례에 구연되는 신화이며 이것은 큰 곳의 첫머리에 청신하는 의례라는 점도 알 수 있었다. 전세계적으로 성인식을 치루거나 흉년이 들었을 때, 치병, 잉태 등에 행해지는 많은 의례에서 우주와 인류의 기원에 관한 창조신화를 들려주는 것은 우주 창조는 모든 창조의 근원이고 우주창조의 상징적 반복은 생명의 새로운 창조를 상징하기 때문인데 집단무의식으로부터 인간 정신인 의식의 획득이 가능하다고 보며 이러한 창조적 정신활동으로 실재도 탄생한다고 믿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본고는 제주의 무속신화 가운데서 창조신화적 성격을 지닌 신화의 원형을 밝혀보았다. 이것은 초감제의 서두에 있는 「베포도업침」이 「천지왕본풀이」보다 더 창조신화적 성격을 지니고 있으며 원형신화임을 밝히고 집단적 무의식의 원형에서 신화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제주신화 연구에는 여러 방법이 있겠으나 다양한 방법론으로 살펴보고자 하는 하나의 시도에 불과하다. 한 편의 신화로 제주 신화 전체의 성격을 규정하는 것이 온당치 않으리라 본다. 이후 다양하고 많은 신화 연구로 제주 무속신화의 창조신화적 성격을 보완하도록 하겠다.

- 핵심어: 창조신화, 제주 무속신화, 천지왕본풀이, 베포도업침, 집단적 무의식, 원형

<참고문헌>

- 김현선, 「'베포도업침·천지왕본풀이'에 나타난 신화의 논리」, 『비교민속학』 28집, 비교민속학회, 2005, 239~269쪽.
- 김현선, 『한국의 창세신화』, 길벗, 1994.
- 문부병, 『제주도 무속사전-열두본풀이 자료집』, 칠머리당굿보존회, 1998.
- 박종성, 「중·동부 유럽과 한국의 창세신화 그리고 변주」, 『비교민속학』 35집, 비교민속학회, 2008, 541~572쪽.
- 박종성, 「제주지역 '삼을라전승'과 '천지왕본풀이」, 『정신문화연구』 제22권 제2호, 1999, 121~149쪽.
- 서대석, 『한국신화의 연구』, 집문당, 2001.
- 신화아카데미, 『세계의 창조신화』, 동방미디어, 2002.
- 이나미, 『용, 호랑이 탄 한국인과 놀다』, 민음인, 2010.
- 이부영, 『분석심리학』, 일조각, 2007.
- 이수자, 「제주도 무속과 신화 연구」, 이화여대 대학원 박사학위 논문, 1989.
- 이청규, 『제주도 고고학 연구』, 학연문화사, 1995.
- 전북대 인문과학연구소, 『창조신화의 세계』, 소명출판, 2002.
- 장주근, 『풀어쓴 한국의 신화』, 집문당, 1998.
- 현용준, 「제주도 개벽신화의 계통」, 『제주도연구』 5집, 제주도연구회, 1988.

<Abstract>

A study on character of creation myth of 'Bepodoupchim'

Kim Sun-hee

It is not necessary to use the word, 'creation' by restricting to myth formed in the beginning of mental development history of human race. Creation means to be conscious of world by appearance of consciousness. Creation not only is a psychological fact of appearance and acquirement of consciousness of a group but also discovery of a new world.

Among ceremonies of Jejudo *Gut*, 'Bepodoupchim' of Chogamje, or invitation of god can be archaic myth of creation myth. Although it was modified according to transmission will of transmission group, archetype can be assumed through myth element. 'Bepodoupchim' expresses the Creation of Heaven and Earth, all beings in the universe and human, birth of things, creation of the universe which controls world with two suns and two moons in detail. It seems that this means to recognize the process of separation and division, and to express appearance of consciousness over unconsciousness in the midst of whole human spirit.

This study figured out that 'Bepodoupchim' has a strong

character of creation myth rather than 'Chunjiwangbonpuri', 'Bepodoupchim' is archaic myth. And this study tried to see this from the view of analytic psychology. There are some methods to study Jeju myth. This is also only a trial where various methodologies were used. It would be not reasonable to define character of overall Jeju myths by only one myth. Afterward, further study with various and many myths would be continued for more complete character of creation myth of Jeju shamanism myth.

- Key Words: creation myth, Jeju shamanism myth, 'Bepodoupchim', 'Chunjiwangbonpuri', archetype, collective unconsciousness

* 이 논문은 2011년 7월 15일 투고되었고, 8월 8일 심사 완료되어 8월 10일에 게재 확정되었음.